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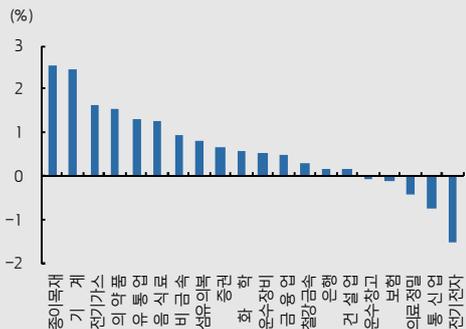
투자전략

Derivative/Technical Analyst **천정훈**
02) 3787-5083
jhchun@kiwoom.com

Short-term pain, Long-term gain

폭락시세와 추세적 하락 시세의 구분 필요

KOSPI 업종별 등락률



자료: KRX

Korea Market Indices

주요지수 및 수급(pt.%)	Close	06/26	06/25	06/24
KOSPI	1,783.45	+0.16	-1.02	-1.31
대형주	1,744.56	-0.02	-0.63	-1.29
중형주	2,026.80	+0.96	-2.55	-1.59
소형주	1,397.11	+1.31	-4.27	-0.95
KOSDAQ	493.07	+2.52	-5.44	-2.35
개인(억원)		+1,973	-952	+1,461
외국인(억원)		-2,145	-1,342	-2,446
기관(억원)		+211	+2,123	+939
거래대금(십억원)	4,292	-171	+1,293	-1,846
Futures & Derivatives				
KOSPI 200 선물	232.15	-1.95	+0.50	-3.05
시장배이스스		+0.63	+2.35	+0.13
프로그램(억원)		-880	+435	-3,550
차익 PR 순매수(억원)		-551	+1,281	-1,682
선물순매수(기관/계약)		+4,806	-1,001	-1,235
선물순매수(외국인/계약)		-5,567	+1,537	+1,738
Money Flow(억원)				
고객예탁금	183,180	+4,048	-2,336	+3,231
신용융자 (거래소)	25,628	-181	-158	-201
미수금	1,541	+78	+2	+427
국내 주식형 펀드	772,116	+1,868	+3,958	+3,023
국내 공모(전체)	677,578	+1,870	+3,903	+3,000
국내 공모(Active)	477,523	+170	+1,275	+1,386
국내 사모	94,538	-3	+55	+23
해외 주식형 펀드	263,982	-383	-287	-293
채권형 펀드	549,339	-2,499	+2,116	+1,556
MMF	708,509	-13,876	-17,766	-19,412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선진국 증시의 우위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 높아

국내증시는 여타 신흥시장에 비해 밸류에이션 매력과 펀더멘탈 여건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좀처럼 진정되고 있지 않다. 중국 경기 부진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출구전략 시행시 가장 매력적인 자산은 펀더멘탈이 가장 양호한 달러화와 미국 주식이기 때문이다. 즉, 투자매력 측면에서 선진국 증시가 신흥시장 증시보다 우위에 있는 구간으로 글로벌 유동성은 미국시장으로 다시 회수되고 있다. 또한 연준의 조기 양적완화 가능성이 축소 된다면, 선진국 중심의 경기개선이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이머징 증시의 상대적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 단기 지수 반등 후 개별 종목 장세 예상

주가 상승 모멘텀 공백이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현재의 지수 하락이 추세적 하락시세인지 일시적 폭락시세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통상 추세적 하락시세는 강세장 이후 경기가 후퇴 국면에서 급락이 발생해서 지지부진한 흐름 끝에 하락하는 반면, 폭락시세는 경기 바닥 국면에서 주가가 상승 추세로 진입하는 시기에 빈번히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경기는 회복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강도가 약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한 현 시점은 일시적 폭락시세의 국면으로 보여진다.

금융위기와 같은 시스템 리스크가 가능성이 낮다고 가정할 때, KOSPI는 금융위기 위기 이후 최저 밸류에이션 수준에 있어 저가 매수권 영역에 도달했다고 판단한다. 양적완화 축소 및 중국 신용경색 우려가 진정되는 시점에서 지수는 제한적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 반도체, 자동차 등 지수관련 주의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고 보인다. 또한 반등 이후에는 지수는 박스권을 유지한 가운데 개별 종목 장세가 전개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도 병행하여 매수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보인다.

>>> MSCI Korea 12개월 Fwd PER 추이



자료: Datastream

금융장세 종료, 유동성 회수구간에서 나타나는 조정국면

지난 6월 FOMC에서 버냉키 의장은 시장의 예상을 뒤엎고 구체적인 출구전략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금융장세(유동성 장세)에 안녕을 고했다. 금리 정상화에 따른 전형적인 자산 배분인 것을 감안해도,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금융 시장의 반응은 패닉에 가까웠다. 시장 참여자들은 근본적으로 공존하기 어려운 두 가지를 원했기 때문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무제한적 양적완화 조치의 지속과, 경기지표의 호조를 동시에 원했다. 즉, 시장참여자들은 당초 Fed가 제시했던 에반스 룰(실업률 6.5%, CPI 2.5%)에 근거해서 일종의 골디락스(Goldilocks)의 지속을 예상했다. 그러나 Fed는 자산 버블을 우려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금융시장은 큰 혼란을 나타냈다.

시장의 과민반응에 전화 나선 F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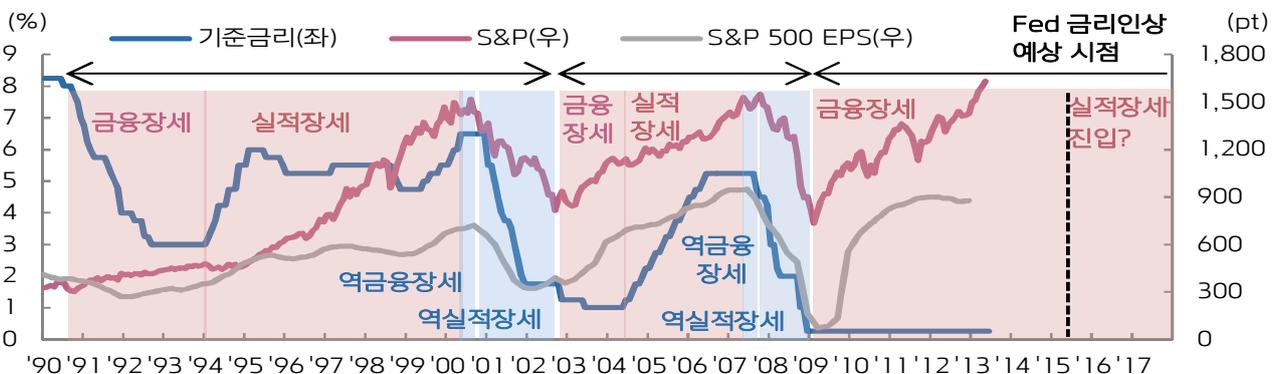
최근의 과도한 시장의 반응에 연은 총재들은 이례적으로 시장에 경고를 했다. 대표적인 매파 인사인 리처드 피셔 델러스 연은 총재는 "시장은 (늘) 중앙은행을 시험하려 한다"면서 연준이 출구전략을 검토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점진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시장에 주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버냉키 의장은 '올해 하반기 자산 매입 규모 축소 → 내년 중반 자산 매입 완전 종료 → 2015년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크게 3단계에 걸친 출구전략 로드맵을 제시했다. 양적완화 축소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용되는 것이지 특정시기에 기계적, 자동적으로 집행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쟁상황에 따라 조기 양적완화 시행이 늦춰질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한 양적완화 축소를 단행한다고 해서 Fed가 경기 부양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다. 최근 연은 총재들이 강조했던 것처럼 Fed는 공격적으로 시중 유동성을 회수하지는 않을 것 이며 금리 인상은 빨라야 2014년 하반기 정도에 단행될 것으로 판단한다. 금리 정상화에 따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임을 감안해도 최근의 시장 반응은 다소 과도한 면이 있었다고 보인다.

미국, 펀더멘탈과 주식 시장간의 연결고리 확인 시도 나타날 것

필자는 20일 시황에서 현 구간을 '강세장 초입의 필연적 진통'으로 기술한 바 있다. 풍부한 유동성에 의해 촉발된 주가의 상승추세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과 경기지표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길고 괴로운 주가 조정 구간이다. 금융장세가 종료된 현 시점에서 미국시장은 과연 펀더멘탈로 재평가 될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이며, 시장 참여자들은 경기 지표 등 펀더멘탈 확인 작업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구전략에 대한 변동성이 진정되는 시간은 요구되나, 결국 중장기적으로 자금이 유입될 곳은 주식일 것이다

주식시장 4계절에 따른 S&P 500 순환국면



자료: 키움증권, Robert Shiller, 주)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Real EPS, 시각적 편의상 EPS X 100

Fed는 2004년과 유사한 점진적 출구전략을 시도할 가능성 것으로 전망

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양적완화 실시로 Fed의 출구 전략 시도는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이나, Fed는 '94년 당시의 출구전략 보다는 '04년에 시행했던 출구전략과 유사하게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90년 이후 Fed는 두 차례의 금리 인상을 통해 출구전략을 시행한 바 있다. ('94년 2월~'95년 2월, '04년 6월~'06년 6월) '94년 당시 Fed는 실업률 하락과 인플레이션 우려, 주식시장 강세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94년 1월 3.0% → '95년 2월 6%'로 급격하게 인상하여, '94년 멕시코의 '테킬라 위기'를 비롯한 라틴 아메리카의 위기를 초래했다.

반면 '04년에 Fed가 실시했던 출구전략은 '94년에 비해 상당히 점진적으로 단행됐다. '04년 6월부터 '06년 6월까지 17차례 걸쳐 25bp씩 단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였다. 이때 당시 미연준은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 시그널을 시장에 보냈고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심리를 합리적으로 유도하여 비교적 금융시장의 충격을 완화 시킬 수 있었다.

역사적으로 금리 인상 초기국면의 주가 하락은 불가피하나, 긴축의 강도에 따라 주가 조정 강도에 영향을 미치며 중, 장기적으로는 강세장이 출현했다. 다만 금리인상이 급격히 진행됐던 94년의 경우, 선진국의 주식시장은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한 반면, 이머징 주식시장은 선진국으로의 유동성 회수로 급락 뒤 약 6개월간의 조정을 거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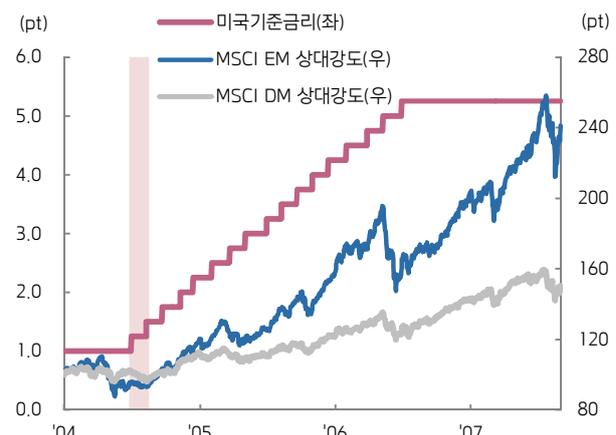
'04년의 경우 점진적인 출구전략으로 '94년 당시보다 충격이 완화될 수 있었다. 약 1.5개월간의 주가 조정 이후 이머징 증시는 금융위기 전까지 추세적 상승을 나타냈다. 물론 '04년과 현재의 경제 회복 강도는 명백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경제 회복 속도가 '04년 당시보다 현저하게 느린 경제속도를 감안하여 연준은 출구전략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며, 최근 격렬했던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점차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

1994년 금리 인상시, 이머징, 선진국 증시 상대강도



자료: Datastream, 1992. 1.2 = 100, 음영부분은 금리인상 후 조정국면

2004년 금리 인상시, 이머징, 선진국 증시 상대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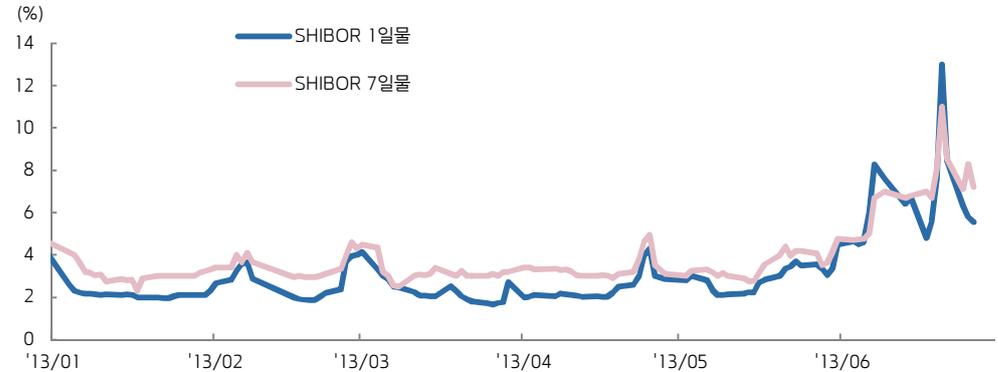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2004. 1.2 = 100, 음영부분은 금리인상 후 조정국면

중국, 시중금리 불안정의 배경

최근 들어 중국 금융시장은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 은행간 대출 금리인 SHIBOR 금리는 6월부터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며 시장의 우려를 증폭시켰다. SHIBOR 1일물 금리는 6월 초 4.5%에서 20일 13%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이러한 신용경색 현상의 배경에는 상반기말 자금 수요가 집중되어 있어 나타나는 측면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인민은행이 시중금리의 급등에도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어 시장의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Shibor Repo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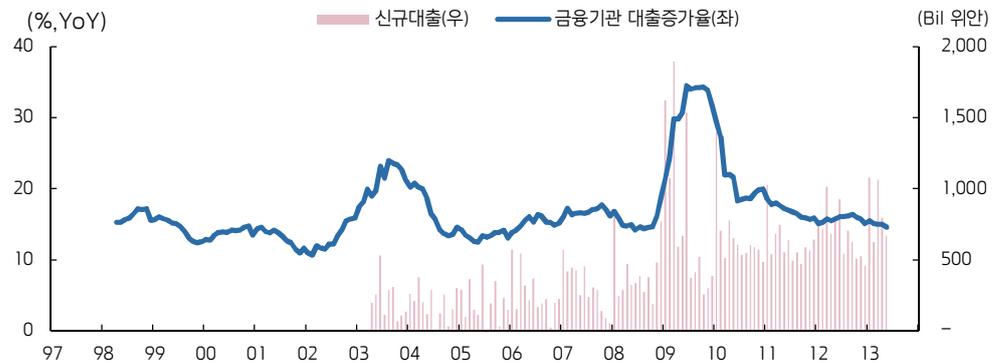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중국, 풍부한 유동성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지 못한 것이 문제

인민은행은 시중은행에 제한적 유동성 공급을 통해 자금시장의 불안을 완화시키고는 있으나, 유동성의 불균형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중국은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기보다는 자금조달의 불균형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현재의 경제 성장률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적극적인 개입을 되도록 지양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인위적인 경기부양보다는 급격히 팽창된 신용과 그림자 금융의 통제 등 금융개혁을 통한 경제 구조 개선에 중점에 주력할 것으로 판단한다. 기본적으로 중국에서는 은행이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나, 중국 경제의 펀더멘탈 자정작용 과정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신규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대출 증가율은 감소 추세



자료: CEIC

이머징 국가, 선진국 대비 투자매력도 상실

지난 19일 Fed의 출구전략 로드맵 발표로 이머징 시장에서는 대규모 자금 유출이 일어났고 이에 따라 트리플 약세 현상이 두드러졌다. 경상수지 적자와 단기 외채 비중 증가로 외국인들은 현재 경상수지 적자국, 외환보유고 등을 기준으로 취약국에 대한 탐색이 한창인 시점이다. 브라질과 터키, 남아공을 필두로 일부 신흥시장 국가들은 외환위기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현재 일부 이머징 국가들은 자기실현적 비관에 따른 비이성적 투매를 경계해야 하는 단계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기 발생경로, 현재 이머징국가는 위기 확산 직전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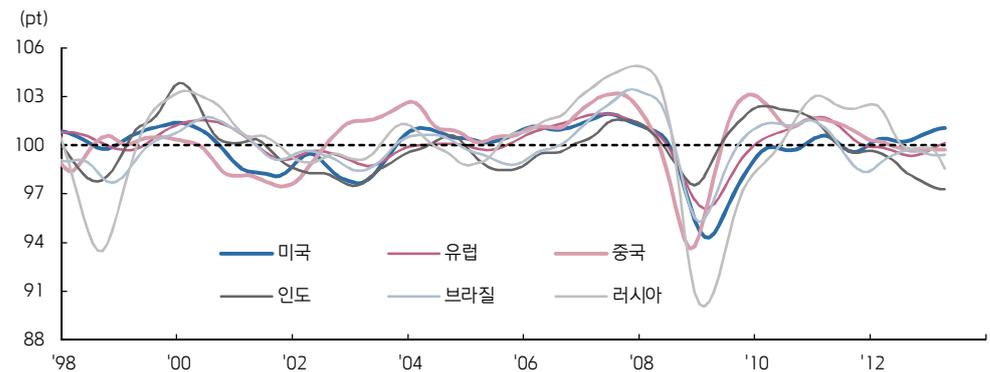
단계	금융위기 발생 경로		이머징 국가	참고할 금융시장 및 경제 현상
위험 잠재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유입		○	금리 하락
	인플레이션 발생 및 환율 강제로 수출경쟁력 약화		○	자산가격 상승
	경상수지 적자 누적		○	
	경상수지 적자에 따른 재원조달로 정부부채 증가		○	성장을 둔화
	정부부채가 지속가능하지 않는 수준에 도달		○	
	정부부채 중 외채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		○	
	위기 발생	외국인 자본유출 시작		○
금리 및 환율 급등 발생		○	주식시장 급락	
위기 확산	국채 차환 및 외화 자금 조달에 문제 발생		?	장단기 금리차 역전
	국채의 자국 금융기관 보유 비중이 높을 경우, 금융위기 발생		?	금융주 주가 급락
	외국인 자본유출 강화		?	환율 급락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악화에 따른 외환보유고 급락이 발생할 경우, 외환위기 발생		?	금융시장 패닉
완화	기축통화 보유한 선진국의 경우, 중앙은행의 본원통화 공급이 필요	기축통화 보유하지 않은 신흥공업국의 경우, IMF로부터 자금수혈이 필요	?	금융시장 진정

자료: 키움증권.

이머징 국가, 선진국 대비 투자매력도 상실

향후 선진국 중심의 경기개선이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고, 신흥공업국 경기는 상대적으로 부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신흥시장의 상대적인 약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경기를 시사하는 경기선행지수는 모멘텀이 강화되거나, 장기 성장추세 위에서 상승세를 지속하는 반면 중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등 신흥공업국 경기선행지수는 장기 성장추세 아래에서 보합을 기록하거나 하락했다.

OECD 경기선행지수 추이



자료: OECD

이머징 국가, 선진국 대비 투자매력도 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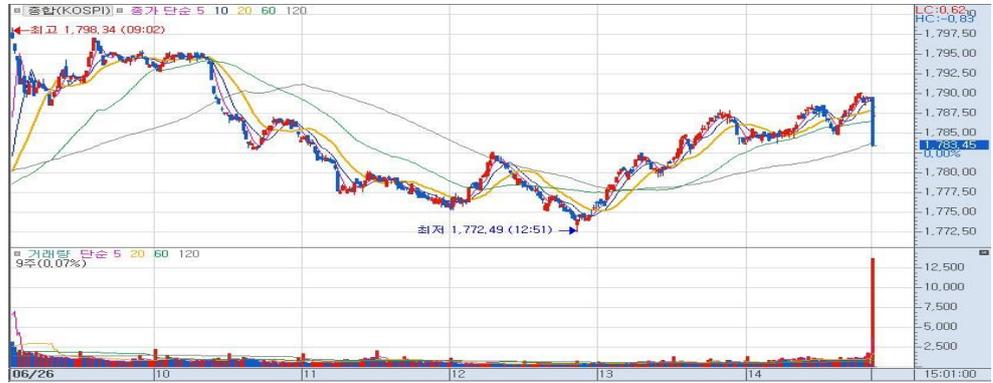
이러한 이유는 크게 2가지로 파악된다. 우선 선진국의 금융완화 정책의 강도가 신흥공업국보다 크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유로 등 선진국 중앙은행은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국 주식시장이 사상최고치 근처에 위치한 반면, 신흥공업국간의 주식시장은 부진한 결과 역시 금융완화정책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로 선진국의 금융완화정책의 초점은 소비나 투자보다는 자산가격 상승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주요 선진국은 채무 디플레이션의 발생을 억제하면서, B/S Repair를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 경기회복에 따른 신흥공업국의 수출증가 등이 뚜렷하지 않다. 이는 선진국의 B/S Repair가 완료되지 않아, 경기 회복이 매우 완만하여 이머징으로의 낙수효과가 예전보다 감소했기 때문이다. 주요 상품가격의 부진은 이러한 영향에서 파급된 결과로 판단된다.

결국 선진국 은행 및 가계의 B/S 조정이 완료된 이후 선진국 소비, 투자의 증가와 이에 따른 이머징 수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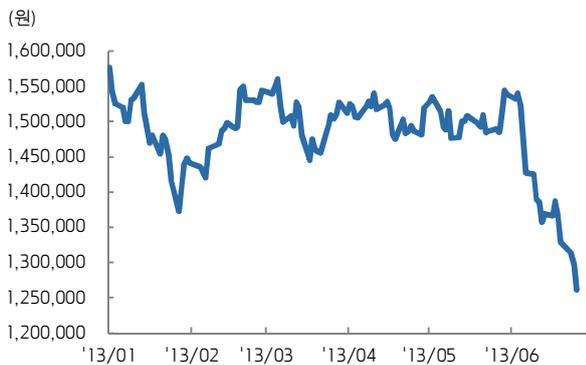
Market Review
국내시장

26일 KOSPI 분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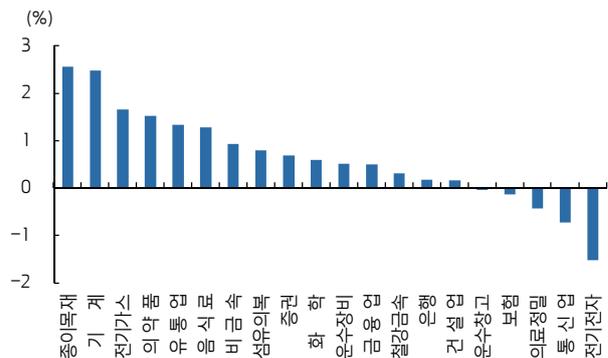
자료: KRX

삼성전자 주가 추이



자료: KRX

26일 KOSPI 업종별 등락률



자료: KRX

국내증시 마감시황

>>> KOSPI, 소폭 상승 마감

26일 KOSPI는 전일대비 2.82pt (+0.16%) 상승한 1,783.45pt로 마감했다. 전일 미국 주택지표의 호조와 중국 신용경색 우려 완화로 소폭 상승 마감했다. 외국인은 5,567계약의 선물을 했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14 거래일 연속 현물 순매도를 나타내면서 지수 상승을 억제했다. 전일 개인과 기관은 각각 1,973억원, 213억원 매수 우위를 보인 반면, 외국인은 2,145억원 순매도를 나타냈다. 프로그램 매매에서 차익거래는 -551억원, 비차익거래는 -330억원을 기록하면서 총 880억원 순매도를 보였다. 한편 높은 수준의 신용잔고 우려에도 불구하고 KOSDAQ은 외국인의 매수세로 전 거래일 2.52% 상승한 493.07pt로 마감했다.

>>> 종이목재, 기계, 전기가스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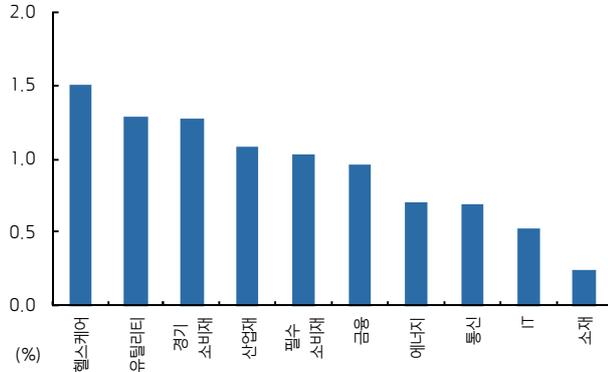
업종별로는 종이목재, 기계, 전기가스, 의약품 등이 상승했고 전기전자, 통신업, 의료정밀, 보험 등이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은 혼조세로 마감했고 전일 외국인 매도세는 삼성전자에 집중됐다. 외국인은 전일 2,145억원을 순매도 하였고 이 가운데 삼성전자에 1,379억원을 매도하여 삼성전자 주가 하락을 주도했다.

Market Review

해외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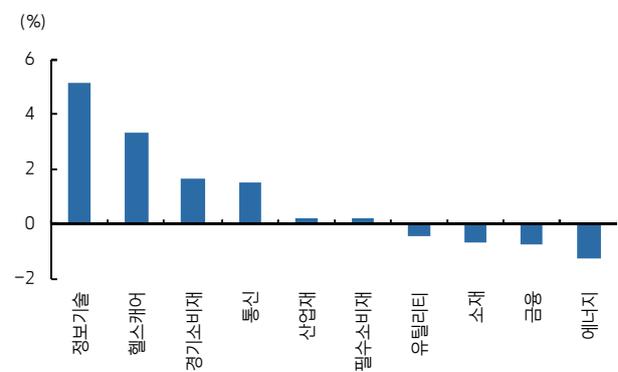
		마감지수	전일대비	등락률(%)			마감지수	전일대비	등락률(%)
국내	KOSPI	1783.45	2.82	0.16	금리(%)	국고채(3년)	2.97	-0.05	-1.66
	KOSPI 200	231.52	-0.23	-0.10		미 국채(10년)	2.54	-0.07	-2.80
	KOSDAQ	493.07	12.11	2.52		환율	원/달러	1154.50	-5.70
아시아	니케이	12834.01	-135.33	-1.04	원/100엔		1182.93	-3.82	-0.32
	대만 가권	7784.80	121.57	1.59	엔/달러		97.60	-0.11	-0.11
	인도 센섹스	18552.12	-77.03	-0.41	달러/유로	1.3008	-0.0091	-0.69	
미국	상해 종합	1951.50	-8.01	-0.41	상품가격	WTI(Spot)	95.50	0.21	0.22
	DOW JONES	14910.14	149.83	1.02		Baltic Dry Index	1125	63	5.93
	NASDAQ	3376.22	28.34	0.85		DRAM 2GB 256Mx8 DDR3	1.92	-0.01	-0.52
	S&P 500	1603.26	15.23	0.96		NAND FLASH 32GB MLC	3.92	0.00	0.00

S&P 500 업종별 등락률



자료: Datastream

심호 300 업종별 등락률



자료: Datastream

뉴욕증시 마감시황

>>> 양적완화 축소 우려감 완화로 인해 상승 마감

2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1/4분기 GDP성장률 부진에도 불구하고, 양적완화 축소 우려감이 완화돼 상승 마감했다. 개장 전, 미 상무부는 1/4분기 GDP성장률이 1.8%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앞서 발표했던 잠정치 2.5%, 수정치 2.4%를 크게 하회한 수준이었지만, 오히려 양적완화 축소 시점이 늦춰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이날 래커 연은총재는 미국 경제가 앞으로도 부진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고, 양적완화 규모 축소 시기는 임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코처라코타 연은총재도 양적완화가 최소한 내년 하반기까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증시 마감시황

>>> 상하이종합지수, 정부 지원 속에 약보합 마감

26일 상하이종합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1% 하락해 1951.50pt로 마감했다. 전일 인민은행의 유동성 지원 및 시장 안정화에 관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증권, 보험 등 금융주의 급락으로 약세 개장했다. 전일 정부당국의 연이은 시장 부양 발언에도 증시는 6거래일째 하락세를 기록했다.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 관련 발표, 국무원의 시장 활성화 대책, 증감회의 시장 환경(IPO신주 발행)과 신뢰 회복에 관한 언급에도 위축된 투자심리를 완화시키지 못했다. 한편 1일물, 7일물 SHIBOR금리와 Repo금리의 하락으로 시장의 안정화 형세가 나타났지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급격히 팽창된 신용과 그림자 금융의 통제 등 금융개혁을 통한 경제 구조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전자 정보, 환경보호산업, 매스미디어 등이 상승했고, 석탄산업, 양조산업 등이 하락했다.

Market Data

증시 지표(06.20~06.26)

(단위: 억원)

구분		6/20	6/21	6/24	6/25	6/26
거래소 시장	KOSPI	1,850.49	1,822.83	1,799.01	1,780.63	1,783.45
	등락폭	-37.82	-27.66	-23.82	-18.38	+2.82
	(시가)	1,864.37	1,806.40	1,821.22	1,790.33	1,799.74
	(고가)	1,873.18	1,823.99	1,821.22	1,807.62	1,799.74
	(저가)	1,844.41	1,806.02	1,798.98	1,770.53	1,772.49
	대형주 지수	1,806.98	1,778.80	1,755.93	1,744.85	1,744.56
	중형주 지수	2,120.59	2,093.44	2,060.07	2,007.48	2,026.80
	소형주 지수	1,467.30	1,454.48	1,440.68	1,379.10	1,397.11
	등락종목					
	상승 (상한가)	131 (6)	199 (6)	203 (9)	111 (12)	613 (3)
	하락 (하한가)	693 (2)	642 (1)	616 (3)	758 (7)	218 (3)
	이동평균					
	(5 일)	1,882.35	1,869.07	1,852.25	1,828.25	1,807.28
	(20 일)	1,941.55	1,934.24	1,925.51	1,915.55	1,905.41
	(60 일)	1,950.24	1,947.56	1,944.32	1,940.77	1,937.08
	(120 일)	1,967.68	1,966.35	1,964.78	1,962.98	1,960.92
	이격도					
	(5 일)	98.31	97.53	97.13	97.40	98.68
	(20 일)	95.31	94.24	93.43	92.96	93.60
투자심리 (%)	30	30	20	20	30	
시가총액 (십억원)	1,074,928	1,059,073	1,045,598	1,034,673	1,036,843	
거래량 지표	거래량 (천주)	355,761	290,458	220,936	332,240	296,935
	이동평균 (5 일)	291,566	293,801	285,099	295,829	299,266
	이동평균 (20 일)	315,367	312,744	310,113	313,921	313,197
	거래대금 (십억원)	4,403	5,016	3,170	4,463	4,292
	이동평균 (5 일)	3,591	3,888	3,868	4,075	4,269
이동평균 (20 일)	4,144	4,162	4,135	4,209	4,228	
매매 주체별 순매수	개인 (억원)	2,259	1,033	1,461	-952	1,973
	외국인 (억원)	-4,574	-8,009	-2,446	-1,342	-2,145
	기관 (억원)	2,328	7,008	939	2,123	211
	일반법인 (억원)	-25	-32	31	177	-66
프로그램 매매 (억원)	-3,101	-4,841	-3,550	435	-880	
코스닥 시장	KOSDAQ	525.59	520.89	508.65	480.96	493.07
	등락폭	-5.82	-4.70	-12.24	-27.69	+12.11
	(시가)	524.88	513.58	523.50	505.28	490.45
	(고가)	531.96	520.89	523.59	508.76	495.02
	(저가)	521.02	507.30	508.65	478.68	482.36
	등락종목					
	상승 (상한가)	193 (8)	237 (8)	203 (7)	62 (5)	745 (5)
	하락 (하한가)	747 (2)	694 (2)	723 (2)	902 (26)	186 (0)
	이동평균					
	(5 일)	530.36	527.33	524.16	513.50	505.83
	(20 일)	555.05	552.62	549.35	544.52	539.89
	(60 일)	556.71	556.23	555.56	554.37	553.33
	(120 일)	538.34	538.66	538.80	538.67	538.60
	이격도					
	(5 일)	99.10	98.78	97.04	93.66	97.48
	(20 일)	94.69	94.26	92.59	88.33	91.33
	투자심리 (%)	30	30	20	10	20
	시가총액 (십억원)	119,022	117,974	115,198	108,994	111,766
	거래량 지표	거래량 (천주)	445,114	418,344	379,863	539,034
이동평균 (5 일)		430,025	416,465	406,878	435,802	433,027
이동평균 (20 일)		480,997	476,720	473,219	479,699	473,590
거래대금 (십억원)		1,543	1,499	1,327	2,156	1,647
이동평균 (5 일)		1,521	1,519	1,459	1,592	1,634
이동평균 (20 일)	1,961	1,911	1,870	1,877	1,834	
매매 주체별 순매수	개인 (억원)	-489	-285	302	-153	-81
	외국인 (억원)	190	-4	-326	66	261
	기관 (억원)	278	326	-29	11	-125
	일반법인 (억원)	25	-39	52	73	-41

자료: 증권전산

증시 주변자금 동향 (06.19~ 06.25)

(단위: 억원)

구분	12년 말	6/19	6/20	6/21	6/24	6/25	
증시 주변자금	고객예탁금	180,143	179,374	178,237	181,469	179,133	183,180
	(증감)		+2,721	-1,136	+3,231	-2,336	+4,048
	신용융자 (거래소)	22,029	26,242	26,168	25,967	25,809	25,628
	(증감)		-55	-74	-201	-158	-181
	신용융자 (코스닥)	17,095	22,557	22,465	22,359	22,118	21,839
(증감)		-306	-92	-106	-241	-279	
미수금		1,241	1,496	1,033	1,461	1,463	1,541
	(증감)		-85	-463	+427	+2	+78
수익증권 잔고 동향	국내 주식형 수익증권	737,330	761,738	763,267	766,290	770,249	772,116
	(증감)		+1,968	+1,530	+3,023	+3,958	+1,868
	국내 공모 주식형 수익증권(Index 펀드 포함)	654,863	667,269	668,805	671,805	675,708	677,578
	(증감)		+1,676	+1,536	+3,000	+3,903	+1,870
	국내 공모 주식형 수익증권(Active)	496,600	474,242	474,692	476,078	477,353	477,523
	(증감)		+347	+450	+1,386	+1,275	+170
	국내 사모 주식형 수익증권	82,467	94,469	94,463	94,485	94,540	94,538
	(증감)		+292	-6	+23	+55	-3
	해외 주식형 수익증권	283,050	264,891	264,945	264,652	264,365	263,982
	(증감)		+1	+54	-293	-287	-383
주식 혼합형 수익증권	주식 혼합형 수익증권	100,435	95,789	95,731	94,842	94,830	94,667
	(증감)		-397	-58	-889	-12	-163
	해외 주식 혼합형 수익증권	26,233	32,660	32,630	32,618	32,617	32,586
	(증감)		-18	-30	-13	-1	-31
	채권 혼합형 수익증권	192,042	232,371	232,911	233,817	233,502	234,089
	(증감)		+1,724	+540	+906	-315	+587
	채권형 수익증권	468,680	546,254	548,166	549,722	551,838	549,339
	(증감)		-618	+1,912	+1,556	+2,116	-2,499
	MMF	636,706	764,683	759,563	740,151	722,385	708,509
	(증감)		+1,983	-5,120	-19,412	-17,766	-13,876

자료: 증권전산, 제로인

외국인 기관 매매수/매매도 상위종목 (06.26)

KOSPI 외국인 매매수/매매도 동향 (단위: 억원)

순위	매매수		매매도	
	종목명	거래대금	종목명	거래대금
1	SK하이닉스	188	삼성전자	1,399
2	현대차	78	현대모비스	171
3	대우인터내셔널	70	LG화학	143
4	삼성전기	57	KT	115
5	오리온	56	KB금융	92
6	SK텔레콤	56	삼성엔지니어링	92
7	NHN	53	현대중공업	85
8	코웨이	49	신한지주	83
9	한국가스공사	43	삼성중공업	81
10	삼성화재	42	POSCO	75

자료: 증권전산

KOSPI 기관 매매수/매매도 동향 (단위: 억원)

순위	매매수		매매도	
	종목명	거래대금	종목명	거래대금
1	현대모비스	139	SK하이닉스	183
2	기아차	81	삼성전자	148
3	LG화학	74	삼성물산	81
4	대림산업	65	SK텔레콤	77
5	우리금융	62	삼성화재	75
6	POSCO	57	오리온	60
7	삼성중공업	57	현대중공업	42
8	KT	55	코웨이	36
9	삼성생명	53	현대백화점	34
10	NHN	49	대우인터내셔널	34

자료: 증권전산

KOSDAQ 외국인 매매수/매매도 동향 (단위: 억원)

순위	매매수		매매도	
	종목명	거래대금	종목명	거래대금
1	셀트리온	118	루멘스	67
2	와이지엔터테인먼트	26	다음	51
3	게임빌	20	서울반도체	46
4	유진테크	17	KG이니시스	20
5	씨젠	15	KH바텍	19
6	슈프리마	14	세코닉스	17
7	GS홀쇼핑	13	태광	15
8	차바이오앤	11	비아트론	9
9	JCE	10	CJ프레시웨이	8
10	인프라웨어	9	삼천리자전거	7

자료: 증권전산

KOSDAQ 기관 매매수/매매도 동향 (단위: 억원)

순위	매매수		매매도	
	종목명	거래대금	종목명	거래대금
1	SK브로드밴드	26	서울반도체	51
2	KH바텍	21	씨젠	35
3	조이맥스	19	와이지엔터테인먼트	30
4	다음	19	게임빌	29
5	엑세스바이오(Reg.S)	16	네패스	21
6	인터파크	14	에스엠	18
7	셀트리온	12	GS홀쇼핑	16
8	삼천리자전거	9	JCE	14
9	비아트론	9	옵트론텍	12
10	위메이드	9	아프리카TV	10

자료: 증권전산

Technical Approach

전고점 돌파종목

KOSPI	전일 증가 KOSDAQ	전일 증가
한국타이어월드와	20,850 MPK	2,250

(단위: 원)

상한가 종목

KOSPI	전일 증가 KOSDAQ	전일 증가
없음	게임빌	78,500

(단위: 원)

주: 전일 증가가 3개월 이내 최고종가인 종목 중 주가등락율 상위 종목

주: 최근 10일 중 첫 상한가 기록 종목

이격 확대종목

KOSPI	이격도 KOSDAQ	이격도
카프로	78 바이오니아	70
현대엘리베이	79 정백스	70
한올바이오파마	83 테라리소스	74
후성	85 디에이피	76
미래에셋증권	85 에스텍파마	77
동부하이텍	85 잉크테크	77
에이블씨엔씨	85 플렉스컴	77
파미셀	85 한스바이오메드	78
삼성엔지니어링	86 유원컴텍	78
SKC	86 다날	78

(단위: %)

단기 골든크로스 발생종목

KOSPI	전일 증가 KOSDAQ	전일 증가
이필름	1,840 로엔	14,600
대구백화점	16,300 셀트리온	38,900
아세아제지	20,600 셀트리온제약	12,250
대교	7,360 쏠리드	6,350
수출포장	24,100	
베트남개발1	549	

(단위: 원)

주: 20일 이격도 기준 이격확대(이격도 98% 이하) 상위 종목

주: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돌파한 종목 중 주가등락율 상위 종목

Stochastic Slow 신호 발생종목

KOSPI	Slow %K KOSDAQ	Slow %K
대우인터내셔널	28 OCI머티리얼즈	28
아모레퍼시픽	25 성우하이텍	25
현대하이스코	24 테라리소스	24
이수화학	21 빅솔론	23
S-Oil	21 인프라웨어	21
대웅제약	21 에프티이앤이	21
삼성정밀화학	20 사인	21
SBS	20 메디톡스	20

(단위: %)

거래 급증종목

KOSPI	거래증감률 KOSDAQ	거래증감률
우리금융	195.56 웨이브일렉트로	393.19
동아쏘시오홀딩스	167.93 KT유직	382.83
KCC	150.84 바이오니아	352.73
CJ	140.50 아미노로직스	253.98
코웨이	137.45 상보	250.40
한국철강	124.73 잉크테크	242.01
종근당	124.39 게임빌	238.31
동원F&B	119.05 JCE	209.04
두산중공업	108.29 와이지엔터테인먼트	199.40
대상	107.77 코렌텍	177.40

(단위: %)

주: Slow %K가 20% 선을 상향 돌파하는 종목

주: 전일 3%이상 주가상승 종목 중 20일 평균대비 50%이상 거래증가 종목

외국인 지분율 확대종목

KOSPI	외국인 지분율 KOSDAQ	외국인 지분율
쌍용차	75.88 중국식품포장	85.03
	실리콘웍스	24.30
	성광벤드	21.98
	오스탬임플란트	19.64
	코나아이	9.51
	위메이드	8.07
	코렌텍	4.60
	리훙쿠첸	3.19

(단위: %)

기관 매수세 유입 종목

KOSPI	주가 등락율 KOSDAQ	주가 등락율
한솔테크닉스	6.43 웨이브일렉트로	10.82
두산중공업	6.37 코나아이	9.38
유한양행	6.36 와이솔	8.07
한국철강	5.83 엑세스바이오(Reg.S)	7.24
CJ	5.34 성우하이텍	6.87
한진중공업	4.95 동원개발	6.21
제일기획	4.89 웹젠	4.82
SK네트웍스	4.87 경창산업	4.81
무림P&P	4.20 아트라스BX	4.70
동원F&B	3.64 동양이엔피	4.65

(단위: %)

주: 20거래일 대비 외국인 지분율 3% 이상 확대 종목

주: 최근 10일 중 7일이상 기관 순매수 유입 종목 중 수익률 상위종목

공매도 현황 (1개월)

(단위: 주, 원)

종목명	기간 거래량	공매도량	공매도 거래량 / 기간 총 거래량(%)	기간 평균 공매도 가격	현재가	평균가 대비율(%)
오리온	324,373	62,405	19.24	1,071,190	975,000	-8.98
한라비스테온공조	10,533,600	1,932,695	18.35	33,912	34,100	0.55
동국제강	6,323,305	1,081,060	17.10	11,743	10,700	-8.88
대우건설	11,750,819	1,670,946	14.22	7,567	6,900	-8.82
아모레퍼시픽	210,412	27,550	13.09	910,619	887,000	-2.59
대우조선해양	25,795,625	3,365,246	13.05	25,264	23,700	-6.19
에스원	2,045,623	262,751	12.84	63,576	58,900	-7.36
LG전자	23,733,631	2,937,251	12.38	75,971	71,300	-6.15
S-Oil	9,060,749	1,111,051	12.26	79,905	71,700	-10.27
현대산업	6,893,065	842,924	12.23	25,819	23,350	-9.56
S&T모티브	649,522	77,923	12.00	27,557	27,250	-1.11
GS건설	11,815,666	1,386,410	11.73	30,821	27,300	-11.43
삼성엔지니어링	8,876,119	1,022,019	11.51	84,210	72,000	-14.50
한화케미칼	13,125,342	1,500,823	11.43	17,388	16,000	-7.98
동부제철	4,048,369	446,390	11.03	2,817	2,400	-14.79
KT&G	6,740,188	738,291	10.95	77,181	71,800	-6.97
POSCO	3,940,729	423,640	10.75	313,048	292,500	-6.56
제일기획	8,886,226	885,263	9.96	24,652	23,600	-4.27
현대중공업	5,412,086	494,917	9.14	194,952	176,000	-9.72
LG생명과학	1,339,131	122,347	9.14	48,310	45,950	-4.88
현대미포조선	1,985,711	181,024	9.12	131,238	120,500	-8.18
CJ제일제당	1,380,071	124,688	9.03	282,667	254,000	-10.14
현대엘리베이	3,400,201	301,693	8.87	69,738	54,700	-21.56
대림산업	5,043,234	445,952	8.84	90,467	82,700	-8.59
CJ대한통운	1,203,861	104,877	8.71	97,348	91,600	-5.90
두산인프라코어	20,754,319	1,794,815	8.65	12,019	10,400	-13.47
SK케미칼	2,158,863	185,244	8.58	42,810	39,550	-7.61
빙그레	1,194,042	102,130	8.55	106,652	101,500	-4.83
한섬	1,056,712	89,440	8.46	29,974	28,050	-6.42
두산중공업	5,957,405	495,966	8.33	43,455	40,900	-5.88
OCI	3,373,233	271,308	8.04	143,238	133,000	-7.15
삼성정밀화학	1,954,149	156,035	7.98	47,367	42,050	-11.22
LG패션	2,754,381	215,305	7.82	29,605	28,000	-5.42
현대하이스코	6,003,651	468,385	7.80	33,805	32,800	-2.97
금호석유	2,600,597	202,415	7.78	88,605	79,300	-10.50
LG이노텍	4,251,131	326,595	7.68	96,967	85,700	-11.62
카프로	8,509,054	653,690	7.68	8,091	6,290	-22.26
오뚜기	114,522	8,591	7.50	374,976	339,000	-9.59
LG생활건강	789,891	56,886	7.20	585,238	530,000	-9.44
고려아연	1,842,375	131,514	7.14	299,976	265,000	-11.66

자료: 증권전산

대차잔고 증가 상위 20개 종목

(단위: 주, 백만원)

종목명	비중	당일체결	당일상환	잔고증감	당일잔고	당일잔고금액	증가
삼성증권	10.1	2,605,280	11,564	2,593,716	7,754,156	349,324	45,050
대우건설	7.5	781,890	62,630	719,260	30,995,876	213,871	6,900
파트론	10.0	552,091	31,195	520,896	5,429,978	96,110	17,700
SK하이닉스	5.9	896,920	491,275	405,645	40,767,126	1,233,205	30,250
금호타이어	8.6	474,930	102,929	372,001	10,858,622	110,757	10,200
대우조선해양	10.1	433,280	78,920	354,360	19,334,267	458,222	23,700
SK브로드밴드	2.9	218,616	-	218,616	8,504,223	41,032	4,825
대원전선	1.6	180,000	-	180,000	1,112,753	896	806
GKL	4.4	204,750	38,200	166,550	2,744,535	88,374	32,200
현대건설	2.6	173,482	8,104	165,378	2,930,426	160,001	54,600
셀트리온	10.2	434,515	270,039	164,476	10,203,586	396,919	38,900
LG플러스	2.3	164,290	32,581	131,709	10,105,492	114,192	11,300
아이테스트	1.6	120,000	-	120,000	749,608	1,686	2,250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7.4	181,081	65,914	115,167	2,092,474	43,628	20,850
동국제강	15.7	155,520	40,680	114,840	9,672,666	103,497	10,700
원익IPS	6.5	160,000	54,940	105,060	4,751,081	32,877	6,920
동양	0.9	99,000	-	99,000	2,172,692	2,172	1,000
호텔신라	14.4	119,480	21,900	97,580	5,667,721	340,063	60,000
에스엠	11.9	109,583	14,500	95,083	2,449,068	73,472	30,000
삼성엔지니어링	10.5	104,250	9,912	94,338	4,209,272	303,067	72,000

자료: 증권전산

대차잔고 비중 상위 20개 종목

(단위: 주, 백만원)

종목명	비중	당일체결	당일상환	잔고증감	당일잔고	당일잔고금액	증가
한진해운	31.8	527,510	526,465	1,045	39,762,133	269,984	6,790
OCI	25.2	47,893	372,509	-324,616	6,008,950	799,190	133,000
두산인프라코어	21.3	504,980	3,261,788	-2,756,808	35,988,785	374,283	10,400
롯데하이마트	20.2	9,000	16,000	-7,000	4,768,844	371,969	78,000
게임빌	16.5	17,300	9,800	7,500	914,568	71,793	78,500
에스텍파마	15.7	3,000	-	3,000	1,608,413	17,049	10,600
동국제강	15.7	155,520	40,680	114,840	9,672,666	103,497	10,700
코스맥스	15.4	38,640	73,664	-35,024	2,091,350	90,137	43,100
LG이노텍	15.3	92,650	219,600	-126,950	3,087,657	264,612	85,700
호텔신라	14.4	119,480	21,900	97,580	5,667,721	340,063	60,000
오스템임플란트	14.1	12,380	5,762	6,618	1,994,769	54,856	27,500
GS건설	13.6	120,998	52,700	68,298	6,918,734	188,881	27,300
한화케미칼	13.4	78,320	6,730	71,590	18,748,726	299,979	16,000
LG전자	13.0	42,810	113,251	-70,441	21,305,903	1,519,110	71,300
현대산업	12.7	183,958	172,013	11,945	9,535,952	222,664	23,350
에이블씨엔씨	12.2	1,660	8,137	-6,477	1,417,634	50,113	35,350
에스엠	11.9	109,583	14,500	95,083	2,449,068	73,472	30,000
알에프텍	11.1	-	-	-	1,176,079	12,936	11,000
컴투스	11.0	28,699	1,152	27,547	1,111,243	38,115	34,300
LG생명과학	11.0	180,659	248,734	-68,075	1,816,680	83,476	45,950

자료: 증권전산

해외 주요지수 및 종목 동향

	종가	D-1	D-5	D-20
주요국 지수				
Dow	14,910.14	+1.02%	-1.34%	-2.57%
NASDAQ	3,376.22	+0.85%	-1.95%	-2.63%
S&P 500	1,603.26	+0.96%	-1.58%	-2.74%
Semiconductor	464.93	+0.52%	-2.02%	-0.50%
NYSE	9,067.27	+0.87%	-2.04%	-3.77%
NASDAQ 100	2,893.85	+0.95%	-2.22%	-3.37%
S&P 100	721.04	+0.92%	-1.70%	-2.86%
S&P mid 400	1,146.19	+0.70%	-2.15%	-3.39%
S&P small 600	541.94	+1.05%	-3.52%	-3.32%
Russell 2000	963.83	+0.27%	-2.30%	-2.34%
영국	6,165.48	+1.04%	-2.89%	-6.97%
독일	7,940.99	+1.66%	-3.12%	-4.75%
프랑스	3,726.04	+2.09%	-2.95%	-6.24%
일본	12,834.01	-1.04%	-3.10%	-10.42%
대만	7,784.80	+1.59%	-1.44%	-5.79%
홍콩항셍	20,338.55	+2.43%	-3.09%	-11.28%
홍콩 H	9,164.64	+3.31%	-4.38%	-16.08%
상하이종합	1,951.50	-0.41%	-8.96%	-14.73%
상하이A	2,042.13	-0.42%	-8.97%	-14.75%
선전A	940.80	+2.47%	-7.54%	-12.40%
태국	1,424.38	+2.87%	-0.93%	-11.07%
싱가폴	3,104.40	+0.47%	-3.40%	-7.81%
인도네시아	4,587.73	+3.82%	-4.55%	-11.37%
러시아	1,261.13	+1.44%	-2.37%	-9.86%
인도	18,552.12	-0.41%	-3.60%	-7.92%
멕시코	38,805.27	+2.38%	-0.61%	-4.51%
브라질	47,171.98	+0.59%	-1.51%	-15.82%
한국	1,783.45	+0.16%	-5.55%	-10.21%

	종가	D-1	D-5	D-20
주요 상품가격				
금(COMEX)	1,229.60	-3.55%	-10.48%	-11.62%
천연가스(NYMEX)	3.71	+1.65%	-6.46%	-10.63%
알루미늄(LME,3M)	1,771.00	-1.06%	-3.59%	-4.66%
전기동(LME,3M)	6,720.25	-0.67%	-4.06%	-7.12%
아연(LME,3M)	1,836.25	-0.20%	-1.86%	-2.01%
WTI(현물)	95.50	+0.22%	-2.79%	+2.54%
옥수수	664.5	+1.18%	-2.60%	-0.08%
설탕(NYBOT/ICE)	17.01	-0.35%	+0.24%	+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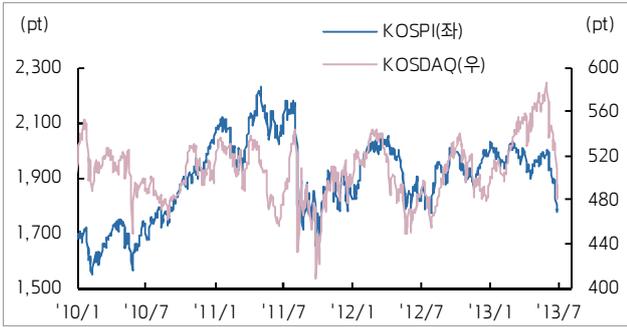
한국 DR 및 환율				
KB금융지주(ADR)	29.41	-0.10%	-4.05%	-11.15%
신한지주(ADR)	31.26	-0.48%	-5.13%	-12.14%
LG디스플레이(ADR)	11.60	+1.05%	-10.08%	-14.83%
POSCO(ADR)	63.84	-0.09%	-6.26%	-10.19%
SK텔레콤(ADR)	19.50	-0.26%	-7.76%	-1.12%
한국전력(ADR)	10.81	+1.03%	-6.57%	-9.31%
KT(ADR)	15.33	+2.61%	-5.25%	-8.91%
우리금융지주(ADR)	27.30	+4.96%	-1.12%	-14.98%
삼성전자(GDR)	555.50	-1.86%	-8.41%	-16.97%
삼성전자 우 (GDR)	358.50	+1.85%	-6.40%	-14.48%
현대차 우 (GDR)	40.39	+0.97%	-2.35%	-3.53%
LG전자(GDR)	11.13	+1.18%	-8.47%	-24.39%
롯데쇼핑(GDR)	14.75	-2.90%	-8.95%	-7.29%
STX팬오션(SGD)	1.32	+17.33%	-20.96%	-67.00%
원/달러	1,154.50	-0.49%	+2.11%	+1.90%
엔/달러	97.60	-0.11%	+2.54%	-3.34%
달러/유로	1.3008	-0.69%	-2.94%	+0.56%
위안화/달러	6.1476	+0.04%	+0.33%	+0.43%

다우지수 구성종목				
3M	109.68	+1.33%	-1.69%	-1.30%
Alcoa	7.75	-2.15%	-4.44%	-9.67%
Altria Group	34.93	+0.97%	+0.23%	-3.21%
American Express	73.90	+0.91%	-0.44%	-2.55%
AIG	43.35	+0.62%	-2.66%	-4.17%
AT&T	35.33	+0.86%	+0.23%	-1.62%
Boeing	100.75	+2.11%	-1.47%	+1.68%
Caterpillar	82.10	-0.28%	-2.55%	-5.08%
Citigroup	47.61	+1.30%	-3.88%	-8.93%
Coca Cola	40.33	+1.54%	-0.20%	-2.58%
Du Pont	53.53	+1.23%	+0.11%	-4.44%
Exxon Mobil	89.80	+0.77%	-1.32%	-2.48%
General Electric	23.25	+0.61%	-3.04%	-1.65%
General Motors	32.55	+2.29%	-3.30%	-4.41%
Hewlett Packard	24.01	+0.67%	-5.58%	-4.87%
Home Depot	75.67	+2.06%	-0.34%	-4.81%
Honeywell	43.62	+0.62%	-2.66%	-4.17%
IBM	194.86	-0.06%	-3.51%	-6.28%
Intel	24.01	+0.54%	-3.96%	-1.07%
J&J	86.99	+1.92%	+2.51%	+1.56%
JPMorgan	52.50	+0.81%	-1.96%	-3.97%
McDonald's	98.84	+1.35%	+0.03%	-0.21%
Merck	46.69	+1.00%	-1.87%	-0.38%
Microsoft	34.35	+2.14%	-0.69%	-1.52%
Pfizer	28.10	+0.39%	-3.44%	-0.64%
P&G	77.40	+0.93%	-0.27%	-1.90%
United Tech	92.98	+1.31%	-1.27%	-2.25%
Verizon	50.66	+0.44%	+1.22%	+2.20%
Wal Mart	75.01	+0.86%	+0.74%	-1.60%
Walt Disney	63.21	+1.02%	-1.74%	-4.60%

필라델피아반도체 구성종목 및 주요 기술주				
AMD	4.14	-0.24%	+1.72%	+4.02%
Altera	32.72	+0.34%	+0.68%	-1.80%
Applied Materials	14.97	-1.96%	-4.65%	+1.15%
Broadcom	33.87	+0.50%	-0.85%	-5.94%
Cree	62.97	+4.43%	-3.20%	+1.37%
Intel	24.01	+0.54%	-3.96%	-1.07%
KLA-Tencor	55.33	-0.27%	-1.57%	-0.52%
LAM research	44.64	-1.17%	-5.24%	-4.51%
Linear Tech	36.65	+0.58%	-0.43%	-2.24%
Marvell Tech	11.73	+2.36%	+4.36%	+2.62%
MEMC	8.15	+1.88%	-4.00%	+6.96%
Micron Tech	14.18	+3.09%	+1.47%	+19.82%
National Semi	37.98	+1.55%	-10.72%	-6.87%
Novellus System	40.39	-0.47%	-6.16%	-10.44%
Sandisk	59.35	+1.73%	-3.59%	+1.78%
Stmicroelectron	9.05	+2.49%	-7.08%	-2.79%
Taiwan Semi	17.64	+0.63%	-1.95%	-8.32%
Teradyne	17.24	+1.35%	-1.65%	-0.98%
Texas Instrument	29.11	-0.78%	-1.32%	-3.64%
Xilinx	39.48	+0.77%	-0.70%	-2.40%
Apple	398.07	-1.13%	-5.89%	-10.54%
Ebay	51.33	-0.60%	-1.72%	-6.76%
Cisco	24.39	+1.58%	-1.20%	+1.10%
Dell	13.46	+0.22%	+0.37%	+0.75%
Research In Motion	14.91	+2.40%	+5.14%	+5.22%
Google	873.65	+0.86%	-3.00%	+0.61%
Nokia	3.91	+1.82%	+1.56%	+8.31%
Oracle	30.14	+0.60%	-11.59%	-12.38%
Qualcomm	61.27	-0.87%	-1.03%	-4.43%
Yahoo	25.29	+1.32%	-3.64%	-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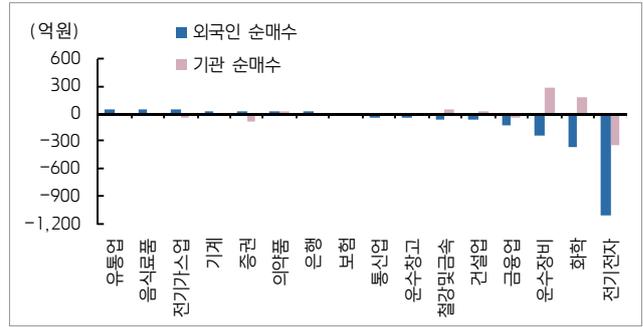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KOSPI vs KOSDA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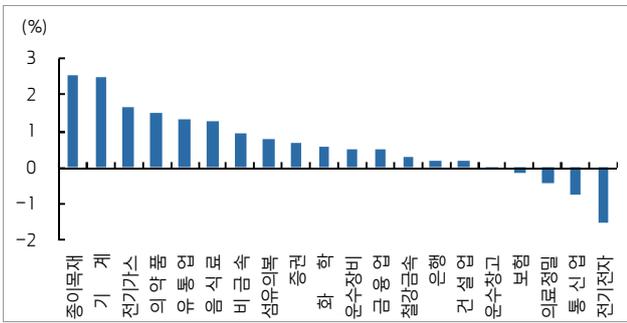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업종별 기관 vs 외국인 순매수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업종별 일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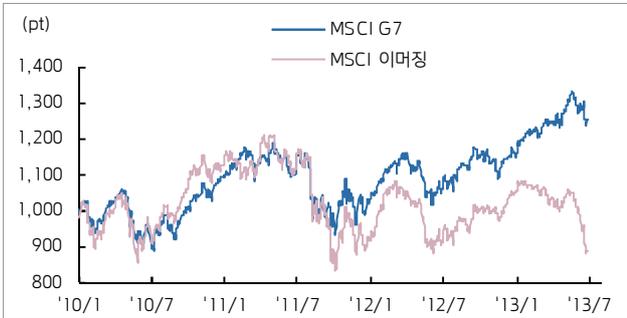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매수차익잔고 vs 매도차익잔고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MSCI G7 vs MSCI 이머징



자료: Datastream

다우존스 vs 나스닥



자료: Datastream

닛케이 225 vs 대만 가권



자료: Datastream

상하이 A vs 뭄바이 SENSEX 30



자료: Datastream,

원/달러 vs 원/100엔



자료: Datastream

엔/달러 vs 달러/유로



자료: Datastream

미 국채 수익률 2년 vs 10년



자료: Datastream

국고채 수익률 3년 vs 회사채 AA-수익률 3년



자료: Datastream

CRB 상품지수 vs W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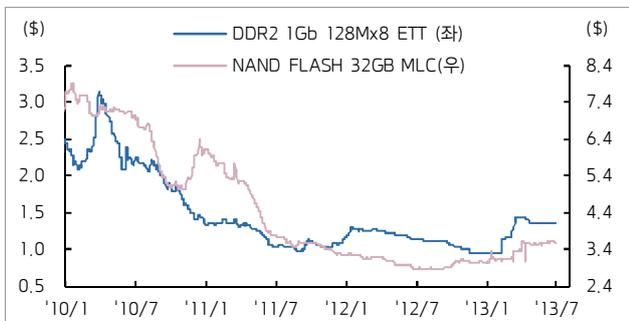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금 선물가격 vs 달러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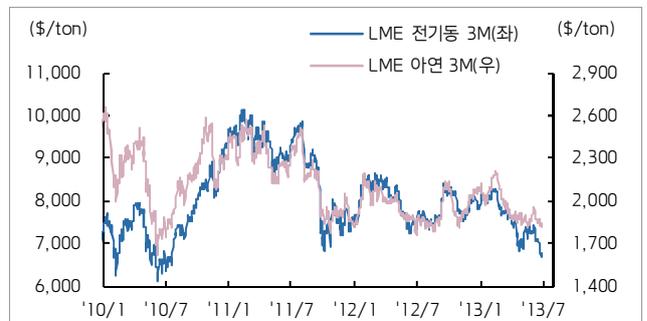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DRAM2 1GB vs NAND FLASH 32GB MLC



자료: Datastream

LME 전기동 3M vs LME 아연 3M



자료: Datastream